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닉 애덤즈의 소외

- 청년기를 중심으로

장혜영*

I. 서론

II. 청년기

1. “사흘간의 폭풍”(“The Three-Day Blow”)
2. “투쟁가”(“The Battler”)

III. 맺음말

I. 서론

헤밍웨이의 작품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헤밍웨이 자신처럼 중산층에 속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의 작품 속에는 뛰어난 지성적인 인물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부유한 인물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권투 선수, 투우사, 술집 웨이터나 계급이 낮은 군인과 같은 보통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죽음의 공포나 패배의 위협에 당면했을 때, 이들은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과 자제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주인공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

*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

인공은 헤밍웨이 자신을 모델로 한 닉 애덤즈(Nick Adams)이다.¹⁾ 필립 영(Philip Young)은 헤밍웨이의 주인공들 중, 닉 애덤즈(Nick Adams)가 마크 트웨인(Mark Twain)의 허클베리 핀(Huckleberry Finn)처럼 전쟁 혹은 폭력이 난무하는 세계 속에서 공포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²⁾ 영은 헤밍웨이의 세계를 궁극적으로 전쟁상태의 세계로 간주했는데³⁾, 그만큼 헤밍웨이의 작품 속에는 전쟁·투우·총살·죽음의 공포 등 인생의 잔혹한 면들이 긴장과 위험 속에 도사리고 있다.

아서 월드혼(Arthur Waldhorn)은 인생의 진정한 것에 도달하기 위한 헤밍웨이의 문학적 출발은 인생의 가장 단순한 것들로부터라고 하였다.⁴⁾ 그의 작품세계의 특징적 요소인 폭력과 죽음도 인생의 가장 단순한 사건 속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겠다. 분명 헤밍웨이의 의도는 그가 창조한 등장 인물들이 이와 같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냉혹한 현실을 뛰어넘어 새로운 비전을 성립하게 되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특히 헤밍웨이는 이 엠 할리데이(E.M.Haliday)가 지적하듯이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상태의 세계에서 인간이 처한 조건을 면밀히 살펴 보는 것에 그의 주된 관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⁵⁾ 잭슨 제이 벤슨

1) 물론 주인공 닉을 자서전적인 면에서 떼어놓고 봤을때 더 흥미로운 점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Howard L. Hannum, "Scared sick looking at it": A Reading of Nick Adams in the Publishd Stories,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Spring 2001: 47, 1: Proquest Direct Complete. p.111. notes 1.]

2) Philip Young, *Ernest Hemingwa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59), pp.37-9.

3) Philip Young, "The World and an American Myth", in *Ernest Hemingway: A Reconsideration* (University Park and Lond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66), pp.127-8.

4) Arthur Waldhorn, *A Reader's Guide to Ernest Hemingwa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72), p.175.

5) E.M. Halliday, 'Hemingway's Ambiguity: Symbolism and Irony', in *Hemingway: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Robert P. Week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2), p.53. 할리데이는 인간조건에 대한 헤밍웨이의 관심사를 <인간을 세계와 우주의 배경 하에 놓는 것, 여러 관점으로부터 인간상황을 검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Jackson J. Benson)도 헤밍웨이는 주변 환경 속에서 변화해가는 인간의 정서 상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진정한 실존주의자라고 평한다. 본 논문 연구의 주제가 되는 소외에 관련된 문제 제기는 현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본 논문에서 “소외(alienation)”라 함은 해리 쇼(Harry Shaw)가 『문학용어사전』(Dictionary of Literary Terms)에서 정의한 것을 의미한다.⁶⁾ 즉 한 인간이 주변에 있는 인물들과 마음을 열어놓고 섞이지 못하고, 또 그가 속한 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며, 자기가 받은 충격이나 문제점을 누구와 의논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붙들고 씩씩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헤밍웨이의 여러 단편들 중 닉 애덤즈와 관련 있는 단편들을 청년기를 중심으로 연구해 보기로 한다. 참고로 본 논문은 닉 애덤즈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거론되거나 추정되는 단편들만 선별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이 된 주된 작품 3편과 그 외의 이야기들은 모두 헤밍웨이의 『단편집』(The Short Stories)⁷⁾에서 선별했음을 밝힌다.

단편소설가로서 헤밍웨이는 가히 세계 제 일류이다. 일찍이 아더 보스(Arthur Voss)는 단편소설가로서의 헤밍웨이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 현대 단편소설의 형식과 인물형성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작가로서 앤톤 체홉(Anton Chekhov),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및 캐더린 맨스필드(Katherine Mansfield)와 견줄만한 세계 일류의 작가로 꼽고 있

6) Jackson J. Benson, “Ernest Hemingway as Short Story Writer,” in *The Short Stories of Ernest Hemingway: Critical Essays*, ed. Jackson J. Benson (Durham, North Carolina: Duke University Press, 1975), p.273.

6) 쇼는 소외에 관련해 문학용어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자신의 동료나 사회로부터의 움츠러들임 또는 이탈. 소외의식은 지난 반세기(20세기를 지칭)의 많은 문학작품들에 지배적이며, 특히 부조리극, 실존주의, 그리고 비트족의 신념들에서 두드러진다. [Harry Shaw, *Dictionary of Literary Terms* (New York: McGraw-Hill Company, 1972), p.12.]

7) Ernest Hemingway, *The Short Stories of Ernest Hemingwa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6)

다.⁸⁾ 월튼 리츠(A. Walton Litz) 또한 헤밍웨이의 단편이 지닌 압축적이고, 생생한 효과와 시적 특질을 극찬하고 있다.⁹⁾ 헤밍웨이 자신도 “빙산의 움직임이 갖는 위엄은 수면위에 나타나 있는 것이 그 전체의 단지 8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에 기인한다.”(“The dignity of movement of an iceberg is due to only one-eighth of it being above water”)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단편소설이 지닌 함축성을 시사 한 바 있다.¹⁰⁾

헤밍웨이의 미래의 독자들은 확실히 그를 단편소설로 기억할 것인데, 단편 소설 작법의 스타일과 주제는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 단편 소설의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의 단편 소설은 인기 있는 대학 교재로 쓰이면서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소설 입문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¹¹⁾ 사실 단편이 장편에 비해 독자층을 겨냥했을 때, 현대에 있어서 훨씬 매력적이다 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적 의미에서 단편은 읽기편할 뿐만 아니라 헤밍웨이의 단편이 갖는 의미는 읽으면 읽을 수록 깨닫는 바가 새로우니, 수수께끼 같은 요소들을 찾아 보는 재미도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닉이 인간 전체를 대표하도록 의도된 인물이라는 설도 있다. 조셉 데팔코(Joseph Defalco)에 따르면, 닉 애덤즈(Nick Adams)에서 애덤즈(Adams)는 닉이 제 2의 애덤(Adam)임을 뜻하며, 닉(Nick)이라는 이름 자체는 서양에서 지칭해온 올드 닉(Old Nick), 즉 사탄(Satan)을 지칭한다는 것이다.¹²⁾ 이는 닉 애덤즈(Nick Adams) 이름 자체만으로도 닉이

8) Arthur Voss, *The American Short Sto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73), p.220.

9) A. Walton. Litz, ed. *Major American Short Stories*, revise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pp.364-5.

10) Carlos Baker, *Hemingway: The Writer as Artist*,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2), p.177.

11) Hannum, p. 92.

선과 악이 혼용되어있는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로스 베이커(Carlos Baker)는 닉을 1920년대에 미국 남서부에 살고 있었던 중산층의 전형적인 인물로 평가한다.¹²⁾ 닉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중산층의 한 평범한 아이로 성장한다. 의사인 아버지에 인텔리여성이었던 어머니를 두었으며, 여자문제로 고민하는 사춘기를 지나 젊은 혈기로 군대에 지원하여 전쟁을 경험한다. 그 후 안락한 가정을 꾸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에 이른다. 베이커의 주장대로 그야말로 우리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인 셈이다.

II. 청년기

닉의 청년기를 다룬 작품들은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기에 맞추어 대표격인 한 작품씩 살펴볼 것이다. 첫 시기는 닉이 부모님의 영향권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무엇보다 이성 친구나 동성 친구와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이들 친구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다. 유년기를 거쳐 처음 성에 대한 눈을 뜰 무렵 만났던 인디언 여자 친구에 대한 미련 때문인지, 마음의 갈등을 일으킨 백인 여자 친구 마조리와 결별한 닉이 그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자기의 쓸쓸한 마음을 알리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이 “사흘간의 폭풍”이라는 작품을 통해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닉이 집을 떠나 사회에서 겪는 충격적인 경험들과 이에 따른 닉의 소외감이 소개된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닉이 가정과 친구들과의 영역을 벗어나서 사회에서 폭력과 맞닥뜨리게 되고, 이에 충격을 받은 후

12) Joseph Defalco, *The Hero in Hemingway's Short Stories* (New York: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63), p.26.

13) Baker, p.117.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투쟁가”라는 작품을 통해 처음으로 집과 고향을 벗어나 길을 나서던 중 맞닥뜨린 폭력의 세계 및 사회와 인간관계로부터 소외된 한 전직권투선수의 일생이 소개되고 있다.

마지막 시기는 닉이 이태리 전선에서 겪게 되는 닉의 체험을 묘사한 작품들 및 전쟁에서 겪은 경험으로 닉이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는 과정을 묘사한 작품들이다. 닉의 청년기의 마지막 단계인 이 시기는 미국인으로서 이태리의 전쟁에 참여한 닉이 겪는 충격과 공포 및 소외를 다룬 일련의 작품들이다. 이 시기의 작품은 본 논문에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1. “사흘간의 폭풍”(“The Three-Day Blow”)

이 작품은 사건의 전개상 “어떤 일의 끝”과 맞물려 있다. 백인 여자친구 마조리와의 관계가 끝남에 따라 오는 닉의 상실감이 어떠한지 계속해서 그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목에서처럼 사흘간의 폭풍이 객관적 상관물로 작용하여 주인공 닉이 겪는 정신적, 심리적 변화과정을 대변하고 있다. 계절의 묘사를 서두로 절친한 친구인 빌과의 대화를 통해 청년기의 방향이 잘 묘사되고 있으며, 닉이 나름대로 해결책에 도달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이 작품은 절친한 친구인 동시에 인생 선배격인 빌과의 관계에서도 닉이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 빌은 연애에 있어서는 닉보다는 베테랑처럼 보이며, 연애에 서투른 닉을 교육하고 안내하는 교사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¹⁴⁾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닉에게 통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 인물들간의 소외감이 두드러진다 하겠다. 인생 초심자인 닉에게 있어서 닉의 아버지도 제대로 수행하

14) 이길구, 「헤밍웨이 작품 속 주인공 닉 애덤즈」(『영어영문학 연구』제 48권 3호, 2006), p.198.

지 못했던 교사의 역할을 빌과 빌의 아버지에게서 찾으려 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한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헤밍웨이의 전기적 요소들과 맞물려 몇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제시한다. 헤밍웨이가 첫 이혼후 두 번째 결혼을 기념하는 의미로 부인과 이탈리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쓴 작품이 「이탈리아 기행」이다. 이 기행의 중심적 이미지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바람, 먼지, 연기, 숲, 밤나무 등으로 그 이후에 쓰여진 헤밍웨이의 작품들에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사랑하는 마조리의 상실은 무솔리니 체제 이전의 이탈리아의 상실로, 첫부인 해들리의 상실은 본 작품 속 인물인 빌과 기행 속 여행동반 남자와 평행을 이룸으로써 가리워진다. 빌과 여행남의 남성적 동반이 비극적 정서를 없애줌으로써 변화에 대한 정서적 독립심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¹⁵⁾

과수원을 둘러싼 시골 풍경이 펼쳐지는 도입부에는 아직도 실연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닉의 모습이 의미심장하게 묘사되고 있다. 마치 황무지의 풍경을 연상시키듯 황량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계절은 가을로 수확이 한창일 것 같지만 열매는 다 떨어져 나갔고, 바람만이 벌거벗은 나뭇가지 사이로 불고 있다. 사랑의 결실이 없이 방황하는 닉의 텅 빈 마음 같다. 그리고 다시금 그 사랑을 되돌리고 싶기라도 하듯 닉은 길에 나뭇구는 사과 한 알을 자신의 옷 속에 집어넣는다. 마조리를 떠나보낸 닉이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잘 모르면서도, 이전의 관계를 다시금 되돌리고픈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편하지 못한 닉의 마음은 친구인 빌의 집 안에서 불타고 있는 벽난로의 불에서도 나타난다. 그것도 큰 불('big fire')(115)이다. 바람이 불자 그

15) Mark P. Ott., 'Nick Adams at a Windy Cross Roads: Echoes of Past and Future Fictions in Ernest Hemingway's "Che Ti Dice La Patria?" ' in The Hemingway Review:Spring 2005:24, 21:ProQuest Direct Complete.

불은 더욱 요란해진다. 불은 닉의 마음 안에서 이글거리고 있는 어떤 욕망을 상징하고 있다. 닉은 그 불을 술잔의 유리를 통해 응시한다.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닉의 이 같은 행동은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자기가 아닌 것 같다. 술에 취한 탓도 있겠으나 황량한 가을바람처럼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복잡한 자신의 심정에 비해 아무렇지도 않는 얼굴을 가장한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이 잠재의식 속에 내재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빌의 아버지는 총을 가지고 사냥을 나간 뒤이고, 빌과 닉은 술을 마시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눈다.¹⁶⁾ 빌은 닉의 절친한 친구이다. 웨지(Wedge)라는 닉을 부르는 자기만의 애칭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며, 가끔 이층에서 닉이 빌 부자와 잠을 잘 정도로 친한 사이이다. 야구 이야기에서 독서 토론에 이르기까지의 화젯거리나 낚시, 사냥 등 취미가 같고, 서로의 아버지를 존경하며, 부친의 이야기를 하며, 서로 위로해 줄만큼 마음이 통하는 그들이다. 빌의 아버지는 화가로서 빌이 보기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며, 닉의 아버지는 의사로서 닉이 보기에 손해를 많이 보신 분이다. 이렇게 닉이 자신의 아버지를 동정하고는 있으나 빌과의 대화를 보면, 빌의 아버지보다도 더 거리감을 두고 있어 부자간의 소통이 끊어진지 오래임을 보여주고 있다.(빌의 아버지에게는 “He’s a swell guy,”로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My old man’s all right,”라고 지칭하고 있다.)¹⁷⁾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동년배 사이에서 느껴질 법한 경쟁의식도 있다. 술에 서서히 취해갈 무렵 서로 취기를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 침착성을

16) 이전 작품이 주로 이미지리기법에 의존했다면 이 작품은 대화가 비중이 높은 작품이다. 스투어트는 이렇다할 설명 없이 회화만 이루어지는 헤밍웨이 특유의 기법을 ‘설명 없이 이루어지는 회화(uncommented-on dialogue)’로 소개하고 있으며 헤밍웨이의 현대적인 기법으로 역시 ‘말없이 보여주는 기법(show-don’t-tell)’을 분석해 놓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 작품에서 작가적 개입은 단 두 번 허용되고 있어 헤밍웨이 소설의 현대적인 기법의 한 전조가 되고 있다. (Stewart, pp.50-1.)

17) Hannum, p. 102.

보이려고 한다. 빌은 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인 상담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자 빌은 마조리와 의 일을 거론한다. 그러나 그동안 열띠게 이야기하던 닉은 시종일관 침묵으로 일관한다. ‘닉은 아무 말이 없었다’(‘Nick said nothing’)이라는 구절이 세 번 정도 반복되고 있다. 그만큼 마음속 생각이 복잡함을 알 수 있다. 빌은 닉이 닉의 여자 친구였던 마조리와 헤어진 것은 현명한 처사였으며, 그만 털어버려라고 충고한다. 다른 결혼한 남자들을 보았을 때, 결혼은 자칫 자신을 망치는 길이며, 만약 닉이 마조리와 의 관계를 끊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결혼해서 돈을 버느라 처갓집 간섭을 받느라 고생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¹⁸⁾

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겐 이미 취기가 사라지고 혼자 남게 되었다. 빌은 그 자리에 없었다. 난로 옆에 앉아 있기도 싫고 그렇다고 내일 빌과 그의 부친, 또는 누구하고 낚시질하러 갈 마음조차 사라졌다. 그는 취하지 않았다. 취기도 완전히 가셨다. 한 때 마조리는 자기의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에 의식이 집중될 뿐이었다.

Nick said nothing. The liquor had all died out of him and left him alone. Bill wasn't there. He wasn't sitting in front of the fire or going fishing tomorrow with Bill and his dad or anything. He wasn't drunk. It was all gone. All he knew was that he had once had Marjorie and tha he had lost her.(123)

빌의 말처럼 마조리와 결혼했다면, 이처럼 한가로이 술잔을 기울이는 지금의 시간은 없었고, 내일 낚시도 가지 못했을 것이니, 오히려 축하해

18) 결혼 생활의 부정적 이미지, 구체적으로 남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의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이미 닉의 유년기를 다룬 “의사와 의사 부인”에서부터 예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스투어트는 이들 부부의 따로 하는 잠자리와 빌이 시사하는 결혼의 부당성이 닉의 결혼시절을 다루고 있는 “끝없는 눈”으로 연계되어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Stewart, pp.49-50.)

야 할 일이다. 이러한 친구의 위로에도 닉은 여전히 행복한 기분이 들지 않는다. 지금 닉의 머리 속은 온통 마조리와의 해결되지 못한 심리적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야기하는 빌을 앞에 두고 닉은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다. 빌이 하는 말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취기가 짙아지면서 자기는 혼자라는 느낌만이 들 뿐이다. 닉에게 있어서 옆에 있는 빌은 그 자리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빌과 빌의 아버지와는 상충하기도 싫다.

나는 이제 끝장이다라는 기분과 다시는 마조리와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다는 상실감에 방향감을 잃어버린 채, 마지와의 이전의 여러 가지 계획만이 닉의 머리 속에 맴돌 뿐이다. 마조리와 이태리로 여행가자고 약속도 했었지만 그러나 이젠 허사다.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갔으니, 마치 사흘간의 폭풍이 불어치듯 순식간에 끝나 버렸다. 닉은 다시는 마조리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빌은 이젠 마조리와의 관계가 끝난 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잊자고 말한다. 왜냐하면 마조리와의 일은 또 휩쓸려 들어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조리와의 일은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빌의 말 한 마디가 닉의 가슴에 꽂혔다. 이는 마조리와의 관계가 끝났다는데에 너무도 몰입했지만, 마조리와의 관계에 또 휩쓸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은 닉이 미처 생각지 못한 말이었다. 일종의 에피파니(epiphany)인 셈이다.¹⁹⁾ 마조리와의 연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19)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사실을 깨달음으로 인해 긍정적으로는 사고의 새로운 전환이라고 볼 수 있으나 스투어트의 지적처럼 이것은 닉의 그릇된 희망일 수 있다. 스투어트는 그 증거 제시로 상실감을 강하게 부정하는 닉의 생각('Nothing was ever lost')을 들고 있다. 스투어트는 이 같은 닉의 사고는 젊은이의 취기이며 동시에 현실직면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임을 설명한다.(Stewart, p.50.)

또한 스투어트는 에피파니를 현대소설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헤밍웨이의 이러한 에피파니 기용을 당시 교제 중이던 제임스 조이스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Stewart, p.55.)

는 깨달음에 너는 너무도 행복하다. 사냥을 나간 빌의 아버지를 찾아서 밖으로 나온 너에게 마조리와의 일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었다.²⁰⁾ 더더군다나 대수로운 일도 아니다. 폭풍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원상 복귀되 듯이 너의 머리 속에 휘몰아치던 바람이 다 그친 후였다. 그는 마조리와의 새로운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2. “투쟁가”(“The Battler”)

해마다 베스트 단편소설을 편집하는 에드워드 오브리엔(Edward J. O'Brien)에게 보낸 헤밍웨이의 편지를 보면, 헤밍웨이는 자신의 작품을 언급하며 ‘조용한’(quiet)이란 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야기의 표면적 행동보다는 극적 사건에 대한 화법과 그의 함축적 기교를 언급하는 것이지, 그의 이야기는 결코 조용한 이야기가 될 수 없다고 스투어트는 평한다. 그 예로, “인디언 마을”, “의사와 의사 부인”, “투쟁가”를 들고 있다.²¹⁾

헤밍웨이는 그의 첫 번째 주인공인 닉 애덤즈가 세상에 입문시키는 과정을 도보여행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는 19세기 후반에서 20초반에 이르는 영미작가들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작품의 도입부에 나오는 장면 중, 특히 너에게 행해진 제동수의 이중적인 면이 데이비스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점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

스튜어트에 따르면 너의 이 같은 그릇된 에피파니는 “사흘간의 폭풍”에서 끝장난 연인과의 관계를 다시 돌이킬 수 있다는 너의 생각으로 이어진다.(Stewart, p.55.)

20) 너와 빌의 긴 대화의 끝은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국 빌의 충고와는 완전히 어긋난 너의 생각으로 결말이 났다. 그리고 곧이어 그들은 바깥 숲속으로 나서게 된다. “인디언 마을”에서의 너와 아버지, “의사와 의사부인”에서의 너와 아버지에 이어 역시 자연으로의 귀환인 셈이다. 스투어트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남성들의 감정적 복잡성에서 자연으로의 도피적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Stewart, p.50.)

21) Stewart, pp.29-30.

렇다면 이 작품은 어린 닉 애덤즈의 도보여행을 극화시키고 있는 셈이다.²²⁾

닉은 집과 마을을 벗어나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고, 이 작품에서는 시종일관 인간의 잔인성과 폭력이 작품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무임승차를 하기는 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어린 닉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화물열차 제동수, 이유 없이 닉에게 시비를 거는 유명한 전직 권투 선수, 이 사람에게 빌붙어 살며 폭력을 행사하는 한 흑인 남자, 이들 모두가 닉으로서 처음으로 접하는 폭력의 제공자들이다. 닉이 유년기 때 인디언 마을에서 분만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목격했었다면, 바깥세상에 눈을 뜰 무렵인 청년기에는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들에게서 폭력과 잔인성을 맛보고 있다.²³⁾

작품은 첫 장면에서부터 잔인한 폭력을 보여주고 있다. 닉은 가까이에서 있는 기차선로 옆에 내팽개쳐져 있다. 바지가 찢어지고 살가죽은 벗겨지고 손톱 밑에는 모래와 석탄재가 끼어 있다. 닉은 화물차에 무임승차했었는데, 무언가를 주겠다고 유인한 한 제동수의 피임에 빠져 그에게 가까이 갔다가 한 방 먹고 기차에서 낙하한 것이다. 그 때 제동수는 분명 “꼬마야, 이리 온.” (“Come here, kid..”) (130) 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언급함으로써 폭력을 써서는 안 될 어린 소년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것도 닉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닉을 그렇게 내팽개쳐놓고는 팔

22) 조지 몬테이로는 이 작품이 헤밍웨이의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도보, 방랑 문학에 대한 그의 관심 쪽에 그 바탕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는 필립 영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그러면서도 상상과 현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헤밍웨이의 탁월한 필체는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George Monteiro, 'The Jungle Out There: Nick Adams Takes to the Road,' pp.62-70. in *The Hemingway Review: Fall 2009.*)

23) 말콤 코울리(Malcolm Cowley)는 “인디언 마을”, “투쟁가”에서 작가의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아마도 “인디언 마을”의 자살한 남편과 “투쟁가”의 전직권투선수에 게서 독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이룬다. 그만큼 그들은 소외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Malcolm Cowley, 'New Republic,' November, 1938, pp.367-8. in *Hemingway: The Critical Heritage.* p.265.)

을 툭툭 치고는 노래를 부르며, 지나갔다는 것이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더구나 늑지가 근처에 있고 다리까지 있다면 그 위험은 더 컸을 것이다.

닉은 아픈 몸과 허기진 배를 잡고 걸어 나가다가 자욱한 안개 속에서 다리를 지나가게 된다. 한 세계에서 다른 한 세계로 들어선 것이다. 마치 “인디언 마을”에서 배를 타고 인디언 마을로 진입했을 때, 안개 자욱한 호수가 레테르강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다리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닉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 내야만 한다.²⁴⁾

뜻하지 않게 닉은 개간지에 있는 모닥불을 발견한다. 그 모닥불의 주인들 또한 아마도 닉처럼 기차를 타고 왔음이 분명하다. 모닥불 옆에는 한 사나이가 앉아 있었는데, 닉의 인기척에도 불구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불을 바라볼 뿐 끄떡을 하지 않는다. 닉이 인사를 건네자 그제서야 눈길을 보내는 그 사람은 닉의 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온다. 그리고는 닉에게 그 제동수에게 돌맹이를 던져서 분풀이를 하라고 일러 준다. 불빛 아래서 차츰차츰 보이는 그의 얼굴 모양은 일그러지고, 귀도 한 쪽 밖에 없는 괴상한 모습의 사나이였다. 닉은 메스꺼움을 느낀다. 그런 괴상한 얼굴의 사람을 본 것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사람이 건네는 질문들은 닉을 당황스럽게 만든다. 특히 미쳐

24) 닉은 철길 따라 걸어가며 늑지대를 통과하게 되는데 “두개의 심장을 가진 강”에 나타나는 늑지대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른 비평가들처럼 스티UART도 “투쟁가”의 늑지대와 『우리들의 시대』의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작품으로 소개하는 “두개의 심장을 가진 강”에서의 늑지대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상징적 장소로 보고 있다.(Stewart, p.52.)

늑지대는 그 표면적 특징처럼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상징한다. “투쟁가”에서 닉은 늑지대를 우연히 지나가게 된다. 아직 인생의 쓴 맛을 모르기 때문인 동시에 이 늑지대는 이 이야기 내에서 앞으로 경험하게 될 사건을 상징하고 있다. “두개의 심장을 가진 강”에서는 닉은 늑지대를 의식적으로 피하고자 한다. 그만큼 인생의 몇몇 고비를 넘긴 탓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 결말에 헤밍웨이는 닉이 앞으로 늑지대를 갈 것이라라는 여운을 남김으로 인생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닉은 웃음을 참기 힘들다.²⁵⁾ 그러나 그 사나이는 애드 프랜시스(Ad Francis)로 아주 유명한 전직 권투 선수이다. 그는 그것을 증명이라도 해 보이려는 듯 유독 느린 심장 맥박수를 재보라고 한다. 스튜어트는 애드의 이 같은 특별한 느린 심장이 권투선수로서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었지만, 그에게 기형적 얼굴과 버그즈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은 닉의 아버지가 딕 보울튼에게 맞았지만, 결국 물러서서 억눌렀던 분노를 갖게 되었던 것처럼 결국은 패배일 뿐임을 상기시키고 있다.²⁶⁾ 애드와 닉의 아버지는 닉으로서는 마땅히 존경과 모방의 상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패배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줌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때 또 한 명의 사나이 버그즈(Bugs)²⁷⁾가 나타난다. 이름에서처럼 그는 애드(Ad)에게 빈대 붙어 사는 니그로(Negro)이다. 헤밍웨이는 흑인을 가리키는 용어로서는 가장 비천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버그즈의 천박함과 야비함을 암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폭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듯, 버그즈는 지나칠 정도로 애드에게 친절하며, 자상하다. 그의 말투는 언제나 부드럽다. 닉에게도 버그즈는 닉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미스터(Mr.)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저녁식사를 만드는 버그즈를 도와 빵을 자르던 닉에게 애드는 칼을 좀 달라고 했다가 거절을 당하다. 버그즈가 말렸기 때문이다. 그 때부터 사건이 급변하여 애드는 닉에게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며 무섭게 접근해

25) 도중에 등장한 버그즈는 닉도 앞으로 얼마든지 미칠 수 있다는 말을 함으로써 애드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데 실제로 닉은 전쟁시에 그리고 그 후에도 전쟁이 남긴 정신적 상처와 휴우증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26) Stewart, p.53. 아울러 스튜어트는 링 위에서 싸워야하는 애드의 권투선수로서의 남성적 특징과 대중들로부터의 외면과 싸워야하는 개인적 갈등을 대조시키고 있다.

27) 토드 드파스티노는 이 이름을 잭 런던의 작품 *The Road* 에 나오는 "buggered"에서 따온 것으로 간주한다. (Todd DePastino, Introduction, *The Road*, By Jack London, Ed. Todd Depastino, New Brunswick, NJ: Rutgers U P. 2006. xxvii.)

온다. 자기 빵과 담배를 내놓으라느니, 자기를 때려보라느니 하면서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한다. 이 때 버그즈는 몰래 애드 목뒤로 가 애드의 급소를 헝겊으로 찢 쇠몽치로 때린다. 애드의 고개는 떨어어졌고, 창백한 얼굴에 눈은 떠져 있다. 닉을 안심시키려는 듯 버그즈는 닉을 미스터 애덤즈(Mr. Adams)라고 부르며, 아침을 하면서 물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는 애드를 잠재운 쇠몽치를 자랑한다. 그리고는 애드와는 감옥에서 만났으며, 그 당시의 애드에 대해서 이야기 해준다. 애드는 운동선수로서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너무 닳아서 누이동생으로 오인 받고 있었던 아내가 사라진 후 깡패가 되어 버렸다. 아내는 지금도 돈을 보내고 있으며, 버그즈가 애드를 돌봐주고 있는 것이다. 영의 설명처럼 버그즈가 부드러운 어머니와도 같은 보살핌을 하고 있는 것은 작은 체구의, 가끔씩 발작을 일으키는 애드로부터 얻고 있는 경제적인 안정 때문이다.²⁸⁾ 버그즈는 이 관계에 아주 만족하고 있으며, 애드도 어쩔 수 없이 만족해야 할 처지이다.

애드는 세상 언론의 폭력으로 인해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이다. 한 때는 폭력성이 짙은 권투 선수로서 명성이 높았지만, 지금은 상상도 못할 폭력을 당하며 만신창이가 되어 떠돌아다닌다.²⁹⁾ 그러나 그도 한 때는 미인인 아내와 쌍둥이처럼 보였을 만큼 준수한 사내였고, 얼굴은 비록 엉망이지만 금발머리에, 버그즈의 한 방을 맞고 누워있는 모습

28) Philip Young, *Ernest Hemingway: A Reconsideration* (University Park and Lond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66), p.36.

29) 사춘기적 방랑 속에서 헤매는 닉이 역시 떠돌이 신세인 애드와 버그즈를 만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현상인 동시에 아이러니컬한 면이 있다. 애드와 버그즈가 대중의 이목을 피해다녀야 하는 입장이라면 닉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자 하는 모험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해 피터 메상은 “투쟁가”에서 닉의 배회는 비유적으로 암시되고 있는 것에 비해 “두개의 심장을 가진 강”의 닉은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닉의 행동은 신경말초적인 것으로 공간적으로 사회역사적 측면에서 소외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Messent, p.7.)

에선 어린애 같은 순진함마저 감돈다.

이제 닉은 그 곳을 떠나야 한다. 버그즈가 또 다른 폭력사태를 염려해 미안하지만 떠나기를 부탁했기 때문이다. 애드가 깨어나 또 덤비려 한다면 그 때도 역시 버그즈는 쇠몽치로 그를 칠 것이다. 닉이 떠난 후에도 버그즈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깨어나 머리가 아파드는 애드의 호소에 아기를 달래듯 어른면서 뜨거운 커피를 권하고 있다. 닉은 불빛이 주는 한 가닥 희망을 찾아 왔건만 따스함은커녕 비정한 폭력을 다시 한 번 경험해야만 했다. 그것도 절대로 봐서는 안 되는 잔인한 폭력이었다. 스튜어트가 암시한 대로 이제 닉은 이 시점을 계기로 인생의 긍정적인 측면, 즉 위로·안전·사랑·의미, 제정신이 철저히 임시적인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³⁰⁾

Ⅲ. 맺음말

헤밍웨이가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생전에 남긴 한 쪽지가 경매에 부쳐 어마어마한 돈으로 팔린 적이 있었다. 한 유명작가가 남긴 작품이 갖는 의미도 크겠지만, 그만큼 작은 필치 하나라도 세간의 주목을 끄는 것은 당연지사라 하겠다. 또한 그 쪽지의 글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 논문의 주제와도 무관치 않다. 바로 인생은 허무와 고독의 굴레라는 의미의 글이었기 때문이다. 역경과 고독의 세계관을 자신의 작품을 통해 펼쳐왔던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작품으로 그 세계관을 승화시킬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과 비행기부상으로 인한 상처를 전기쇼크로 치유하는 과정에서 생긴 치매와 우울증을 견딜수 없어 죽음을 택한 것은 그가 겪었을 작가로서의 고독과 소외를 실감케 한다.

30) Stewart, p.54.

닉 애덤즈 이야기의 주인공 닉은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환경에서 자라났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었는지 모르나 부모님간의 갈등과 사춘기적 방황을 통해 세상의 악과 어두운 면들을 접하게 되고, 청년기의 전쟁 참여를 통해 인간의 삶의 비극적 요소들을 몸소 경험하게 된다.

유년기적 한 개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역할은 닉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존재는 부정적인 이미지 내지 부재의 이미지로, 아버지의 존재는 사냥, 낚시 등 외적요소들에 머무는 데에 그친다. 그만큼 닉은 가정 안에서 소외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디언 마을”에서 닉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아버지와 조지 삼촌은 닉이 인디언 남자의 자살을 목격함으로 인해 겪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닉을 보호하지 못한다. 특히 인간의 자살과 죽음에 대해 나누는 닉과 아버지의 대화는 작가 헤밍웨이 가족사의 비극을 예고라도 하듯 사뭇 진지하다. 닉 부모간의 갈등은 가치관 대립의 문제였으며, 거의 횡포에 가까운 아내의 독단적인 처사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의사와 의사부인”과 “이제 나를 놓히고”에 그러한 부모님간의 갈등의 양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

닉은 가족에게서 받지 못하는 사랑과 관심을 보상받으려는 듯 인디언 여자친구와 그의 남동생과의 교제에 탐닉한다. 프루던스는 그에게 성을 알게 해 준 인디언 여자아이로 실연의 상처도 남긴 첫사랑의 소녀이다. “열명의 인디언”을 비롯하여 “어떤 일의 끝”과 “사흘간의 폭풍”에서 닉은 이성친구로 인해 겪게 되는 사춘기적 갈등과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스로의 고립 내지는 소외의 양상을 내보이고 있다. 부모님간의 갈등, 이성친구와의 단절은 곧 닉이 가정을 탈피, 가출하는 원인이 되었고, “투쟁가”의 닉은 생전 처음으로 부조리한 폭력의 세계를 겪게 된다. 한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힘은 때로는 살인을 몰고 올 정도로 파괴적이다. “살인자들”의 닉은 예고도 없이 찾아온 폭력의 세력에 물리

적인 압박을 받게 되고, 그 부조리함에 마을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된다. 닉의 막연한 바깥세상에 대한 동경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군에 입대, 참혹한 현상들을 체험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뚜렷한 이유 없이 참전한 군 입대는 닉에게 정신적, 육체적 상처만을 남긴다. “이제 나를 놓히고”에서 닉은 심한 불면증을 호소하며, 정신 착란 상태에서 허우적거린다.

청년기의 닉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며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 역점을 두어 다루었던 세 작품인 『사흘간의 폭풍』, 『투쟁가』에서 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마음 속 생각이 질풍노도처럼 움직이는 인생의 한 정점에서 심리적 갈등과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주인공 닉의 모습은 젊은 시절 헤밍웨이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며, 우리들 시대의 바로 우리 각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국문초록〉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닉 애덤즈의 소외 - 청년기를 중심으로

헤밍웨이의 단편은 작품 하나하나가 함축성과 작가자신의 자서전적 요소가 강한 특질을 갖고 있다. 특히 닉 애덤즈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일련의 작품들은 헤밍웨이의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망라하는 긴 세월을 마치 회고라도 하는 듯 그려지면서, 작품들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작가의 숨은 의도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본고의 주제인 소외의 현상들은 작품의 표면적, 내면적으로 편만히 분출되고 있어, 닉 애덤즈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

닉의 청년기는 동성과의 우정과 이성간의 애정이 시작되는 “열명의 인디언”을 비롯, 세 작품을 기점으로 실패한 사랑과 곁도는 우정 속에 처해 있는 닉의 소외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기의 닉은 또한 “투쟁가”와 “살인자들”에서 살벌한 사회와 적대적인 타인에게서 소외되고 있으며, 전쟁을 기점으로 이국의 세계에서 소외와 나아가 나다(Nada)의 의식을 체험하고 있다. 전쟁의 비극 속에 닉의 소외와 공동체 혹은 구성원의 소외 현상은 “이제 나를 눕히고”를 비롯하여 네 편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닉 애덤즈라는 한 주인공을 위시한 일련의 작품들을 소외의 관점에서 조명해 봄으로써, 대인관계의 갈등과 사회 공동체 내의 이기심과 위기감 속에 생존해 나아가야하는 인간의 상황과 그에 대

한 극복의 방안을 발견해 볼 수 있었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상처받고 방황하는 주인공 닉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체험을 했던 헤밍웨이 자신의 자화상일 뿐만 아니라, 가정 내의 불화와 사회내의 부조리, 폭력, 전쟁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병폐적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그 문제의 근원지 탐색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소외는 그 문제점의 근원지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극복되어질 수 있고, 다음 세대와의 연결고리에서도 심사숙고해야 함을 인지해야 한다. 닉 애덤즈 이야기는 인간의 소외상과 인간관계의 소외적 병폐를 시사함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심각성의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위엄성과 용기로 자존감을 지켜나가는 것이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Alienation of Nick Adams in Ernest Hemingway's Short Story: Focused on the Nick's Adolescence

Jang, Hye-Young

Hemingway's works are known for rich connotation and autobiographical elements. In particular, we can perceive the pervasive presence of the author's hidden intention in the reminiscence of the protagonist's childhood, youth, and adulthood. The study explores the internally or externally expressed theme of alienation as an important clue to understanding Nick Adams' stories and as an essential autobiographical element of Hemingway's works in general.

As its basic frame of analysis of the theme of alienation in Nick Adams' stories, the current study examines Nick Adams' stories in a chronological order of his coming of age – from his childhood through adulthood. Such an approach is an effective way to comprehend Nick's sense of alienation by exploring its complex background and its interconnection to the other members of his family and society. Nick's life as a young man is depicted in nine stories. In "Ten Indians," "The End of Something," and "The Three-Day Blow," his alienation is represented as the form of failed love and superficial friendship. In

“The Battler” and “The Killers,” the youthful Nick is alienated from a brutal society and hostile strangers. He experiences a deep sense of alienation and Nada in a foreign country during the World War I. Various forms of alienation experienced by Nick or by other members of the community amid the tragedy of war are the common thread in “Now I Lay Me,” “A Way You’ll Never Be,” “A Natural History of the Dead,” and “In Another Country.” This study examines a human condition in which one must survive and endure amongst interpersonal conflicts, selfishness, and social crises; it also uncovers a restorative device that could solve the problem of human alienation. We can deduce that the Nick’s alienation from his home and society is the portrait of Hemingway’s own experience; in fact, it is the story of any one of us, who are living in the modern society with all its ills - family troubles, social irregularities, violence, and even war.

The first step to problem-solving is finding and understanding the roots of the problem. Human alienation should be conquered through human relationship and the connecting link with the next generation. By presenting the phases of human alienation and its ills, Nick Adams’ stories offer eloquent warning about human alienation and show us how to overcome the adversity of life through preserving self-respect with dignity and courage.

Key words : Hemingway, Nick Adams, alienation, youth., “The Three Day Blow”, “The Battler”

〈참고문헌〉

〈Primary Source〉

- 장혜영.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닉 애덤즈의 소외」, 송실대학교 대학 원 영어영문학과 박사논문. 2004,
Hemingway, Ernest. *The Short Stories of Ernest Hemingwa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6.

〈Secondary Source〉

- 이길구. “헤밍웨이 작품 속 주인공 닉 아담스”, 『영어영문학 연구』 48권 3호 2006.
Baker, Carlos. *Hemingway: The Writer as Artist*.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2.
Benson, Jackson J.(Ed.) *The Short Stories of Ernest Hemingway: Critical Essays*. North Carolina: Duke University Press, 1975.
Cowley, Malcolm. 'New Republic,' November, 1938, pp.367-8. in *Hemingway: The Critical Heritage*
DeFalco, Joseph. *The Hero in Hemingway's Short Stories*.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63.
DePastino, Todd. Introduction, *The Road*. By Jack London. Ed. Todd Depastino. New Brunswick, NJ: Rutgers U P. 2006.
Hannum, Howard L. "Scared sick looking at it": A Reading of Nick Adams in the Published Stories,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Spring 2001; 47, 1; Proquest Direct Complete.
Litz, A. Walton.(Ed.) *Major American Short Stories*, revise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Messant, Peter. *Ernest Hemingwa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2.
Monteiro, George. 'The Jungle Out There:Nick Adams Takes to the Road,' *The Hemingway Review*: Fall 2009.
Ott., Mark P. 'Nick Adams at a Windy Cross Roads: Echoes of Past and Future Fictions in Ernest Hemingway's "Che Ti Dice La Patria?" ' in *The*

- Hemingway Review:Spring 2005;24, 21;ProQuest Direct Complete.
- Shaw, Harry. *Dictionary of Literary Terms*, New York: McGraw-Hill Company, 1972.
- Voss, Arthur. *The American Short Sto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73.
- Waldhorn, Arthur. *A Reader's Guide to Ernest Hemingwa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72.
- Weeks, Robert P.(Ed) *Hemingway: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2.
- Young, Philip. *Ernest Hemingwa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59.
- _____. *Ernest Hemingway: A Reconsideration*. University Park and Lond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66.